

# “버려진 골판지로 표현한 따뜻한 삶의 공간들”

광주미술상 수상 양나희 작가

11월 은암미술관서 수상 기념전

‘세계수영대회 1주년’ 전에 신작 전시

서양화가 양나희(38) 작가의 작품은 개성이 뚜렷하다. 버려진 박스 골판지로 작업하는 방식은 아주 독특해서 한 번 작품을 보고 나면 쉽게 잊지 않는다. 골판지를 캔버스에 일일이 붙이는, 공력이 많은 드는 작업을 통해 그가 화폭에 풀어놓는 ‘집’과 ‘동네 풍경’은 따스하고 안전한 느낌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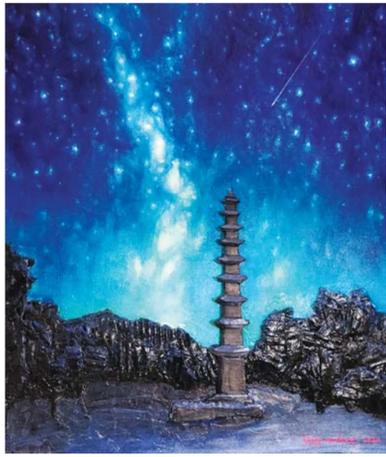
양나희 작가가 최근 제 26회 광주미술상 수상자가 됐다. 사단법인 광주미술상운영위원회(이사장 조규일)가 수여하는 광주미술상은 지역 원로 미술인들이 기금을 마련해 후배 작가들을 지원하고 응원하는 상으로 지역 미술인들이 가장 받고 싶어한다.

“무엇보다 선배 미술인들이 주시는 상이라 더 의미가 있고, 감사한 것 같아요. 몇 차례 도전 끝에 받아서 기분이 좋구요(웃음).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로 알고 작업에 매진하겠습니다.”

양 작가는 이번 심사에서 “소외되고 버려지고 잊혀져 가는 것들에 대한 연민과 함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쓸모 있음과 없음, 아름다움과 그렇지 않는 것들의 간극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작업하고 있다”는 말로 자신의 작품을 소개했다.

다양한 색깔의 페브릭을 캔버스에 붙이는 콜라주 작업을 통해 가족의 초상을 담거나, 풍경 작업을 하던 양 작가가 골판지 작업을 시작한 것은 지난 2011년부터다. 2009년 전남대 대학원을 다닐 당시 버스를 타고 출근하던 중흥동 재개발 지역에 어느 날 발을 들이게 된 게 계기였다.

“늘 바깥에서 보다 안으로 직접 들어가 접한 풍경은



‘願’

당시 힘들었던 제 자신의 모습이 오버랩되며 많은 생각을 하게 했어요. 쓰러져 가는 집들을 보면서 작품을 좀처럼 발표할 기회를 찾지 못해 좌절하던 저를 떠올리게 됐어요. 하지만 그 곳에서도 사람들은 열심히 살고 있었고, 골목길에 나와 햇볕을 쬐며 정답게 이야기 나누는 그들의 모습에서 위안을 받았죠. 그 때 많이 본 게 수레와 버려진 골판지 박스였어요. 제가 자취하면서 가장 많이 버렸던 것도 박스였죠. 내가 쓸모 없다고 버린 게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골판지를 가지고 작업해 보자 싶었죠.”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골판지를 조각조각 잘라서 부조처럼 캔버스와 판넬에 붙이는 요즘 작업 형식을 완성했고, 무엇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과 집들의 모임인 동네 풍경에 대해 풀어내보려 했었다. ‘살+공

간’ ‘해동네’ 등이 대표적이다.

자칫하면 비슷한 작품의 반복처럼 보일 수 있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다채로운 시도를 하며 자신을 다잡는 게 그녀가 가장 고민하고 신경쓰는 부분이다. 지난해 개인전에서 설치 작업을 선보이며 새로운 시도를 했고, 올해 신작에도 영향을 줬다. 강렬한 별빛을 강조한 ‘별의 시’와 운 주사의 탑을 배경으로 한 작품 ‘願’ 등이 대표적이다.



서양화가 양나희

후 흙으로 돌아가는 나무를 통해 생과 사의 자연스러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고 싶었죠.”

11월에는 은암미술관에서 수상 기념전시가 열린다. 미술상 운영위원회는 개인전 개최를 위한 작품제작 지원과 도록제작, 전시공간 제공, 광고 홍보 등 총 1000만원 내외의 창작 지원을 제공한다. 양 작가의 신작은 현재 유스퀘어문화관 금호갤러리에서 열리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1주년 기념 청년작가 14인전’(8월5일까지)에서 만날 수 있다.

호남대 미술학과와 전남대 대학원 미술학과를 졸업한 양 작가는 광주시립미술관 국제레지던시, 상해 운아르테 레지던시 작가로 활동했으며 전남미술대전 대상과 남농미술대전 대상 등을 수상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광주-대구 코로나19 아픔 문화예술 교류로 치유

대구 활동 김결수 작가 초대전, 8월 31일까지 우제길미술관

대구에서 활동하는 김결수 작가 초대전이 오는 8월31일까지 광주 우제길미술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은 물론 전 세계가 사회 전반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초기 큰 피해를 입었던 대구와 최근 피해가 급증했던 광주 지역이 문화예술교류를 통해 아픔을 극복하고 치유의 힘을 갖기 바라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전시 제목은 ‘노동&효과(Labor&Effectiveness)’로 김 작가가 오랫동안 천착해왔던 주제다.

그의 작품 소재는 플라스틱, 강통, 종이, 나무, 고철 등 삶의 현장에서 효용성을 다해 버려진 것들로 지닌 노동의 흔적이 담긴 것

들이다. 인간에 의해 오랜 세월동안 사용되었지만 현대적인 디자인과 첨단 기능의 발달로 인해 외면받고 버려진, 이런 소재는 단순히 물질적 형태를 넘어 ‘시공간적 기록’을 의미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빛집과 숯, 폐 철골 등을 이용한 설치작품 등 모두 8점을 선보인다.

계명대 서양화과와 동대학 미술교육대학원을 졸업한 김 작가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전시를 해 온 중견작가다. 지금까지 러시아-일본 등에서 24회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2018 평창올림픽 피어아트 페스타 등 다양한 그룹전에 참여했다. 대구현대미술가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오는 8월31일까지 우제길미술관에서 열리는 김결수 작가 초대전.

## ‘GAC 공연예술축제, 그라제’ 참여단체 모집...8월 7일까지

광주문화예술회관이 ‘2020 GAC 공연예술 축제, 그라제’에 참여할 버스킹 공연단체와 푸드트럭 셀러와 를 모집한다.

회관은 오는 9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2020 GAC 공연예술 축제, 그라제’ 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코로나 19로 지쳐있는 시민들에게 휴식과 위안을 제공하고 바이러스를 극복, 앞으로 나아가자는 중의적 의미를 담아 ‘위로’를 주제로 정했다.

축제에서는 광주시립예술단체와 함께 국내 유명 민간 예술단체들의 공연이 대극장, 소극

장, 야외공연장 등에서 펼쳐진다. 특히 지역 예술단체들이 참여를 위해 버스킹 공연을 펼칠 지역 공연예술팀(1-6인)을 공개모집한다. 서류 및 영상심사를 거쳐 총 6개 팀을 선정하며 보상금은 팀 당 60~100만원을 지급한다.

또 공연기간 동안 관객을 대상으로 푸드트럭을 운영할 셀러도 모집한다. 셀러에게는 푸드트럭 공간 및 이용객이 사용할 테이블 등을 제공하며 별도의 참가 및 판매 수수료는 없다. 이번 공개모집에 참여할 단체는 27일부터 8월 7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하면 된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광주문화재단, 오늘 ‘광주학 콜로키움’ 김허경 박사 강연

광주문화재단이 주최하는 ‘2020 광주학 콜로키움’이 27일 오후 4시 열린다.

이번 행사에서는 김허경(전남대 기초교육원 강의교수) 박사가 ‘근대 추상회화의 태동과 광주 서양화단’을 주제로 강연한다.

강의는 코로나19 지역감염 예방을 위해 온라인 생중계된다.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의 상단 홍보배너를 클릭하거나 유튜브에서 ‘광주문화재단TV’를 검색하면 접속할 수 있다.

다음 강의는 9월28일 열리는 ‘도시와 시대 광주전의 사람들’이며 박경섭 전남대 5·18연구소 전임연구원이 참여한다.

/박성진 기자 skypark@kwangju.co.kr

송상훈 작 'SUNSET'      양시영 작 '고양이-동행'



## 올타리-그 안에 꿈과 희망 그리고 사랑

‘다르기’ 전, 31일까지 조선대 미술관...장애·비장애인 작가 작품, 동남아 어린이들 그림 T셔츠 전시

‘다르기’는 ‘더불어’, ‘함께’라는 의미의 순 우리말이다. 국제다르기문화예술교류협회는 문화적으로 소외된 위치에 있는 사회 취약계층을 비롯해 다양한 이들이 함께 모여 서로 어우러지며 다채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전시회를 열고 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2020 다르기’전이 27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조선대미술관과 광장에서 열린다.

‘올타리-그 안에 꿈과 희망 그리고 사랑’을 주제로 열리는 올해 행사에서는 장애·비장애 전문 예술인들의

회화 작품을 비롯해 (사)소화자매원 원생들의 작품, 시각 장애인들의 사진 작품 등을 만날 수 있다.

광주미협, 광주미술작가회, 광주구상작가회, 광주·전남수채화협회, 아트 그룹 소나무 등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 소속 작가 뿐 아니라, 울산 구상작가회, 당진 구상 작가회, 대구 예인회 등 전국에서 참여한 작가들이 함께했다.

또 소화자매원 틈새미술관에서 활동중인 성인여성 장애인들이 제작한 아르브뤼(Artbrut) 작품도 선보이며 (사)광주시각장애인연합회 소속 사진 작가

단체인 ‘상상클럽’ 회원들의 작품도 올해 처음 전시된다.

동남아 각국 어린이 미술 작품으로 제작한 다양한 T셔츠를 만날 수 있는 공간도 눈에 띈다.

학창초등학교 6학년생 학생들, 다문화·이주민 자녀, 학교 안·밖의 친구들이 작가들과 함께 참여한 기획전은 지난 2017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는 프로젝트로 캄보디아 돈보스고 폼체레 초등학교, 몽골 노밍 요스 초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그려 보내온 미술작품을 T셔츠로 만들어 전시한다. /김미은 기자 mekim@

SINCE 1982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2015~2019 대한민국소비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무선 행사권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품부문] 수상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062 673 5858 (모발모발)**      매주 화요일 휴무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      일요일 정상 영업